

# Sermon of the Week: Grace and Truth Living Within Us



**Passage:** John 1:14 (ESV)  
**Date:** December 24, 2025  
**Pastor:** Dong Suk Chung

God created the world by His Word at the first creation. Now, that same Word became flesh, came into this world, died, and rose again, thus completing the new creation. Jesus, the Word who became flesh, is the One who is all in all. He came to make us new creations in Christ through the cross, and in doing so, He became us. When the Lord died, we died with Him. When He rose again, we also rose with Him as new people. Therefore, we must no longer see ourselves as our old selves. We have already become the new creation—a new person made with the life of God, a life that is untouchable by worldly things and transcends everything in this world. In order to apply this reality to our lives and work it out within us, God has come to dwell in our midst as the Holy Spirit.

We have already been born as God's people with the resurrected life in Jesus. Therefore, when difficult circumstances arise, we should not fix our eyes on the hardship itself, but o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was laid in a manger. We must recognize and confess, "The negative thoughts, worries, and anxieties that come from the old Adam—that seeks to find the answers to solve these problems—are not truly me. That old self in Adam has already died, and I have become a new person through Jesus." When we acknowledge and stand firmly in this truth, we realize that those difficult circumstances no longer belong to us. Then, instead of praying, "Lord, please heal me," we give thanks that He has already healed us at the cross. We must continually hold on to

this truth and confess it.

God, who is Spirit, saw that humanity had fallen after eating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was being deceived and led astray by Satan. To completely renew humanity through death and resurrection and present us to the Father, God came through the incarnation. Before the incarnation, God as Spirit could not produce offspring, but through the incarnation, many children were born. As Scripture says,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John 1:12-13]. We are no longer beings defined by a physical lineage. We have been completely recreated as those born of God. When Jesus, the incarnate Word, fell like a grain of wheat and died, He produced much fruit: the many sons of God.

Through the incarnation, God also made it possible for humanity to enjoy Him. 1 John says,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looked upon and have touched with our hands, concerning the word of life" [1 John 1:1], and continues, "so that you to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1 John 1:3]. Because Jesus came as a man, we are now able to experience and enjoy God. As the Lord said, "Eat my flesh and drink my blood"; and when we eat and drink Him, we experience transformation and begin to express God. As today's passage declares, the One who is full of grace and truth has become available for humanity to enjoy.

Finally, through the incarnation, we ourselves become God's dwelling place on this earth—the tent and the temple where God dwells. The tabernacle in the Old Testament was a shadow of Jesus Christ, the true tabernacle. Today, by faith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have become

the temple, the house of God. When Scripture says that He was "full of grace and truth," grace means that God's holiness and riches have become our enjoyment in Christ. In other words, God coming to dwell within humanity is grace itself. Truth means reality—what is genuine and real. Today, in Christ, we possess truth and reality. The world and our own thoughts have no true substance; they are empty and fleeting. God has become one with us through Jesus. Because God Himself lives within us, we now know clearly what God's nature is like and what it means to be children of God. For the rest of our lives, we exist to express Him.

The statement that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is truly a glorious truth for us. Through Him, we have automatically become children of God.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ross, Scripture declares, "That Jesus is you, and you are Jesus". What a blessed and glorious truth this is. Our lives should be spent praising Him and living to express this Lord. Therefore, we must not be satisfied with the salvation of the spirit alone. We must press on until our soul and body are also filled completely with Jesus, moving toward the moment when we are transformed into a spiritual body like in His final resurrection [Philippians 3:21]. For this, we need a daily battle—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by the Spirit. Negative thoughts and those shaped by our circumstances do not exist in Christ. We must fight them in faith, believing they are not ours, and drive them away. As we continue this fight of faith, may the verse "according to your faith be it done to you" become real in our lives, so that we will experience a faith marked by astonishing transformation.

# 심니소식

## 나성교회



## 심성교회

1월 11일, 2026년

NASUNGCHURCH.NET

89 호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날짜:** 12월 24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첫 창조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하심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만유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을 옛 사람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새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된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 때 환경의 어려움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옛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 근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건 내가 아니구나. 이것은 몽땅 죽어버렸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장할 때, 어려운 환경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붙잡고 시인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타락하여 마귀에게 속아 끌려 가고 있는 상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아버지께 드리기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영이신 하나님은 생산하실 수 없었으나 성육신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의 혈통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 완전히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한 알의 밀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곧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리라"(요일 1:3)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는 말씀처럼,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곧 성전이 됩니다. 구약의 성막은 참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과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누림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

어오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실제, 참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참, 실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내 자신의 생각은 실재가 없고 헛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예수가 곧 너다, 네가 예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평생 이분을 찬양하며 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혼과 몸 전체가 예수의 것으로 충만해져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같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에 대한 생각은 예수 안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 생각들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믿음으로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 나가며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실재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조연경 형제** 베드로선교회: 방광암 치료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양희 집사** 86세: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 조희순 집사**: 어깨 수술 (오른쪽 회전근개파열) 후 재활치료 중인데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이 심합니다. 재활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춘자 집사** 81세, 양주구역: 허리협착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교소식

## LA 길거리 선교 소식

나성교회 선교부

지난 12월 27일, 전예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LA 길거리 선교 사역에 전창순 집사님과 나성교회 교인 7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비와 추운 날씨로 인해 새벽 운전길은 쉽지 않았지만, LA에 도착할 즈음에는 밝은 햇살이 저희를 반겨 주었습니다.

이번 사역은 상점들이 문을 열기 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활동이어서 이른 아침 Boyd Street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미 약 40-50여 명의 노숙자분들이 길가 한쪽에 길게 줄을 서 계셨고 사모님께서 도착하신 후에 음식과 후원받은 양말, 모자, 장갑 등을 선물 가방에 담았습니다. 전예진 목사님께서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셔야 하고, 차량에 물품이 가득 실려 있어 이번 사역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느덧 약 60여 명이 모였을 때, 사모님께서 선교부장님께 노숙자분들을 위해 짧은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선교부장님께서 창세기 28장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나누어 주셨고,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음식과 선물 가방을 나누어 드리며 서로 새해 인사를 건네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나눔 행사를 마친 후에는 준비한 후원금을 사모님께 전달하였고, 마지막으로 전창순 집사님의 기도로 모든 선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숙자분들의 수는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Terry라는 한 분은 예전에 찍은 목사님 가정의 사진을 보여 주며, 목사님께서 자신을 "데리야끼"라고 부르셨다며 모두 함께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분들이 비록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욕심이 많거나 해를 끼치는 분들이 아니라며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현재 목사님의 건강 상태로 인해 매일 진행하던 선교 사역은 주 1회로 조정되었으며, 2026년도 길거리 선교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며 이날의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주간소식

- 오늘 2부 예배 후에 1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다음 주일에는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 Income Tax에 대한 헌금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교우들께서는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일주일 후에 안내석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헌금확인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해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